

# 한우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1회 성동한우 큰장터 한우농가 살리기 소비촉진 행사 개최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한 초대형 한우장터가 열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전국한우협회(회장 김남배), 마장축산물시장우육협회(회장 이승철)와 함께 '제1회 성동한우 큰장터 한우농가 살리기 소비촉진 행사'를 지난 11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개최했다. 한우 300마리에 해당하는 물량이 준비되어 우족 1kg 7천500원, 꼬리 4kg 3만원 등 한우의 모든 부위를 최저가로 판매했다.

이번 성동구 한우 소비촉진행사는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살리고,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또한 행사장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한우불고기 시식행사가 마련되었고, 성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1,200kg 상당의 한우고기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도 진행되었다.

한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성동한우 소비촉진행사 기간 동안 최저가로 판매된 한우 불고기, 국거리, 우족 등을 소개하기 위해 11월 22일(목) 광화문에서 사전행사를 진행했다.



한우 1kg 7,500원  
우족 4kg 3만원  
국거리 1kg 7,500원  
22일(목) ~ 24일(토) 2일간  
11월 18:00  
성동구 왕십리 광장  
영주시조금관리위원회  
전국한우협회  
마장축산물시장 우육협회

# 한돈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광장에서 '한돈 LOVE Festival' 개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지난 11월 25일(일) 서울광장 동편광장에서 '한돈 LOVE Festival'을 개최했다.

'한돈 LOVE Festival'은 최근 지속되는 불황과 저돈가 상황에서도 소비자들과 한돈인들이 이심전심으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김장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으로 한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0년 전 가격인 등심(1kg)을 3,400원에 전지와 갈비(1kg)을 5,800원에 할인 판매했다.

또한 이날 서울시 '희망온돌' 기부 프로그램에 전달할 한돈 1톤 기부 약속을 위해 시민 참여 형태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먼저 한돈 1톤 기부금 조성을 위해 500원 이상 기부하는 선착순 200명에게 한돈 뒷다리살(1kg)을 증정하는 '500원의 한돈 사랑 나누기'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한돈 1톤' 기부 적립금으로 사용된다.

함께 메시지를 적어 기부 조형물에 날리는 '한돈 사랑 나누기'와 주요 이벤트부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완성하는 '한돈 스탬프 투어', '한돈 백발백중 투호', '한돈 퍼즐맞추기', '한돈 OX퀴즈', '한돈 시식'

이벤트 등 시민 참여 이벤트 활동이 한돈 추가 적립으로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양 계

## 한국계육협회 개최, 2012 닭고기 페스티벌 성료

2012 닭고기 소비홍보 페스티벌이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역 아이파크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닭고기 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가 주관한 행사로  
계열화사업자는 물론이고 육계사육농가, 관련 단  
체가 함께 참여했다.

13일 오전 11시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 전국 투어  
발대식’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닭고기 할인  
판매, 시식회,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이벤트 등 다  
채로운 일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닭고기 900수를 용산 구내 노인복지관에 전  
달하는 ‘닭고기 나눔 행사’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정병학 한국계육협회 회장은 “위축된 닭고기 시장  
이 이번 행사를 통해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서의 행사가 성황리에 마친 만큼 이 열기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관련 행사를 이어나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11월 13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2012 닭  
고기 소비홍보 페스티  
벌’에 참석한 관계자들  
이 닭볶고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 낙 농

## 남아공 IDF총회에 낙농 관련 한국대표단 참석 2018년 낙농올림픽 대한민국 유치활동



100번째 IDF  
연차총회가  
지난 11월 4  
일 남아프리  
카공화국 케  
이프타운 국

제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50여 개국 1천여 명의  
낙농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렸다.

우리나라도 IDF코리아 이근성 위원장(낙농진흥회  
장),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낙농진흥회 박순  
부장과 손병갑 부장이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한국대표단은 오는 2018년 연차총회의 국내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사상 처음  
으로 낙농분야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세계 낙농업계에서 낙농올림픽이라 불리는 IDF  
세계총회는 각국이 자국의 낙농위상을 한층 높이  
기 위해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때문에 이미 2017년까지 개최지가 정해진 상태로  
우리가 유치하려는 2018년 세계총회는 내년(13년)  
초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2013년도 IDF연차총회에서 의제로 상정시  
킨 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열리며 2014년에는 이스라  
엘, 2015년은 리투아니아 2016년에는 네델란드,  
2017년에는 터키에서 개최된다.

이번 IDF연차총회에서는 새 수장도 선출됐다. 신  
임회장은 뉴질랜드의 제레미 힐 씨가 선출됐으며  
내년 1월부터 IDF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제레미 힐 차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IDF의 주요  
과제는 회원을 유지하고 낙농산업에서 세계를 대  
표하는 것”이라며 “낙농분야에서 산업의 세계화,  
국제무역, 통합, 세계수요 및 변동성과 같은 주요쟁

점에 대하여 회원국들과 대처방법을 공유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매년 세계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 사에게 수여하는 2012년 IDF대상은 호주 George Davey가 수상했다. George Davey의 수상과 관련하여 IDF본부는 25년간 국제 우유 홍보 및 식품안 전 시스템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 다고 밝혔다.



### 프로폴리스 활용 다각화...양봉산업에 활력!

#### [앵커멘트]

웰빙시대를 맞아 천연항생제로 알려진 ‘프로폴리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건강식품, 생활용품에 이어 프로폴리스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용 천연항생제가 개발되는 등 이용 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약과 식품의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에 이어 이제는 가축과 양식용 어류 등 가축용으로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천연항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폴리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프로폴리스 부산물을 이용해 가축용 천연항생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완, 서울프로폴리스 대표]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에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폐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 대안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지금 찾고 있던 중에 프로폴리스가 가장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가축용 사료에 항생제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냄새와 가격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권두한, 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프로폴리스에 갖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은 우리가 먹어도 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 폴리스를 적용한 사료를 가축에 적용을 해도 인체 에는 무해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용도가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양봉산업에 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입 벌꿀 증가 등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출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 [인터뷰 :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대전시지회장]

“이제 그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폴리스하고 봉독이 앞으로 우리 산업의 주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능성 물질로 떠오른 ‘프로폴리스’의 활용 성이 높아지면서 ‘프로폴리스’가 위기의 양봉농가 에 활력은 물론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 러일으키고 있습니다.